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7. 18.(화) 6:00 < 7.18.(화) 석간 > 배포 2023. 7. 17.(월)

괴산댐 인근 하천 범람에 따른 정전피해 복구 총력

- 산업부 2차관, 충주지역 정전 현장을 찾아 신속복구 주문 -

산업통상자원부(이하 '산업부') 강경성 차관은 7. 18.(화) 오전,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정전이 발생한 충북 충주 피해 현장(충주시 살미면)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 및 복구 계획을 점검하였다.

계속되는 호우로 인해 괴산댐 하류 지역인 괴산군 1개 읍, 3개 면 및 충주시 살미면에 침수가 일어나 전력 설비가 유실되어 3건의 배전선로 정전이 발생하였다.

충주시 전체 정전세대 285세대 중 선로가 하천을 횡단하여 복구가 곤란한 2세대를 제외하고는 복구가 완료되었으며, 이 2세대에 대해서도 비상 발전기를 지원하여 전기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다.

괴산댐은 지난 7. 15.(토) 06:30분 무넘기(월류)가 발생했고, 현재는 수위가 하락하여 안정화된 상황이나, 추가적인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산업부는 한수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체제를 지속 가동 중이다.

한편, 호우로 인한 전주, 전선 등 배전설비 손실로 지난 7. 13.(목) 이후 약 46,946세대의 정전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99.8%인 46,853세대는 복구 완료되었으며(7. 18., 05시 기준), 잔여 93세대도 진입 여건 등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복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.

강경성 차관은 "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정전피해 복구에 온 힘을 다하겠다."라고 강조하였다. 아울러, "안전사고 방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, 복구 작업 시 감전 등 이차적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"을 당부하였고, "주민들께도 실시간으로 피해 및 복구 상황을 공유하겠다."라고 밝혔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담당 부서	전력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	책임자	과 장	정승혜 (044-203-3930)
		담당자	주무관	장수영 (044-203-3932)